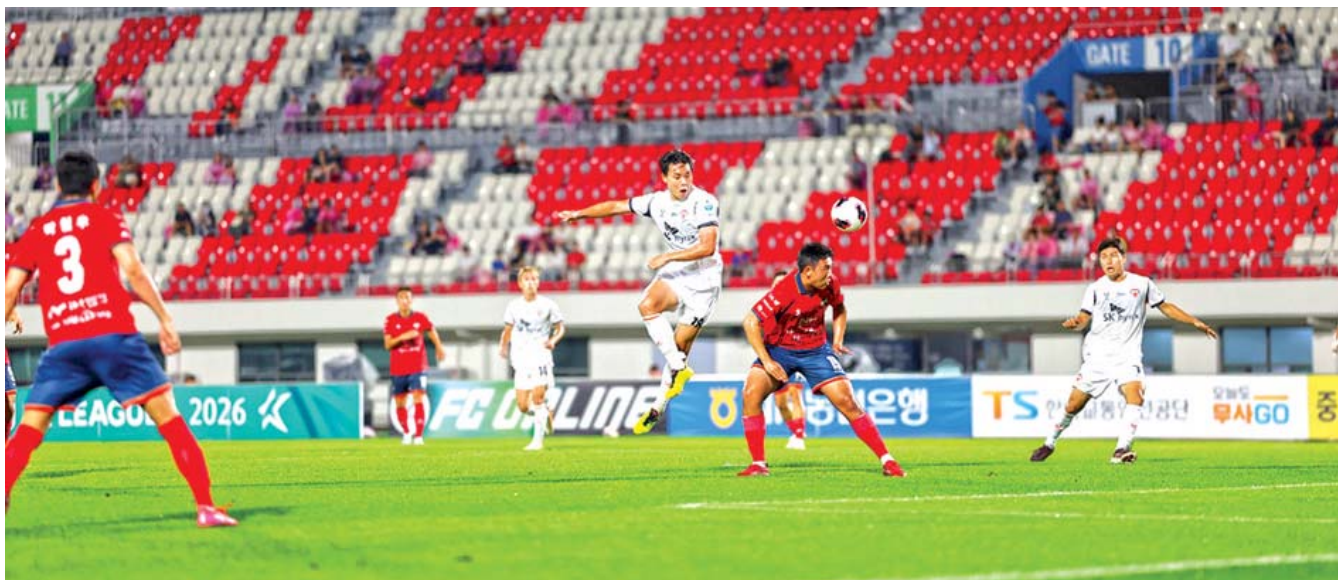




지난 5일 열린 제주SK FC와 김천의 16라운드 경기 모습.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제주SK FC 제공

제주SK ‘홈 3연전’ 승수 쌓는다

현재 승점 19로 8위… 대전·포항·강원과 17~19R
연승하면 승점 26 리그 4위 전복 따라잡을 수도

2026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K리그 후반기 리그에 돌입한 제주SK FC가 홈 3연전에서 승수 쌓기에 나선다.

후반기 첫 경기인 김천상무와의 1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아쉬운 1-1 무승부를 기록한 제주SK는 오는 12일 대전하나시티즌을 홈으로 불러들여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제주SK는 이어 18라운드(18일) 포항과 19라운드(21일) 강원전도 홈 경기로 치른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리면서 9월과 10월 홈 경기가 7월과 8월에 집중

적으로 예정됐다. 리그 후반 원정 경기를 고려한다면 홈 경기에서 최대한 승수를 많이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SK는 9일 현재 5승4무7패 승점 19로 리그 8위에 머물러 있다. 7~8월 홈 경기에서 연승가도를 달린다면 리그 4위 전복(승점 26)을 따라잡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제주 경기력의 핵심인 네게바가 김천과의 경기에서 퇴장 당하면서 대전·포항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지만 퇴장 징계로 자리를 비웠던 코스타 감독이 돌아오고 김천과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기록한 토비아스를 주축으로 하는 수비라인도 부

활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후반기 홈 경기 첫 연승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게다가 올 시즌 원정이었던 대전과의 첫 경기에서 박창준의 골로 1-0 승리를 거둔 만큼 충분히 승전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SK는 7월 홈 2경기(대전전, 포항전)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한여름 밤의 야시장’을 다시 개장한다.

야시장 특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할 플라마켓과 함께 경기 전·후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제주맥주를 증명하는 제주맥주존을 비롯해 마라코치, 꺾바로우를 즐길 수 있는 하이드라오 부스, 푸드트랙 추가 운영 등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한 푸드코र्ट도 만날 수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삼다수체조팀 올해 첫 전국무대 ‘정상’

제51회 전국기계체조대회 단체전 우승… 현진주 2관왕

제주 유일 체조 실업팀인 제주삼다수가 올해 첫 전국무대에서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에 따르면 지난 3~5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기계체조대회에서 제주삼다수는 현진주와 이지선의 맹활약에 힘입어 여자 일반부 단체 종합우승을 이뤄냈다.

제주 출신인 현진주는 마루운동 1위에 이어 개인종합에서도 1위에 오르며 2관왕을 차지했다. 현진주는 부상으로 2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지만 올해 재활과 훈련을 거듭하며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끈

기를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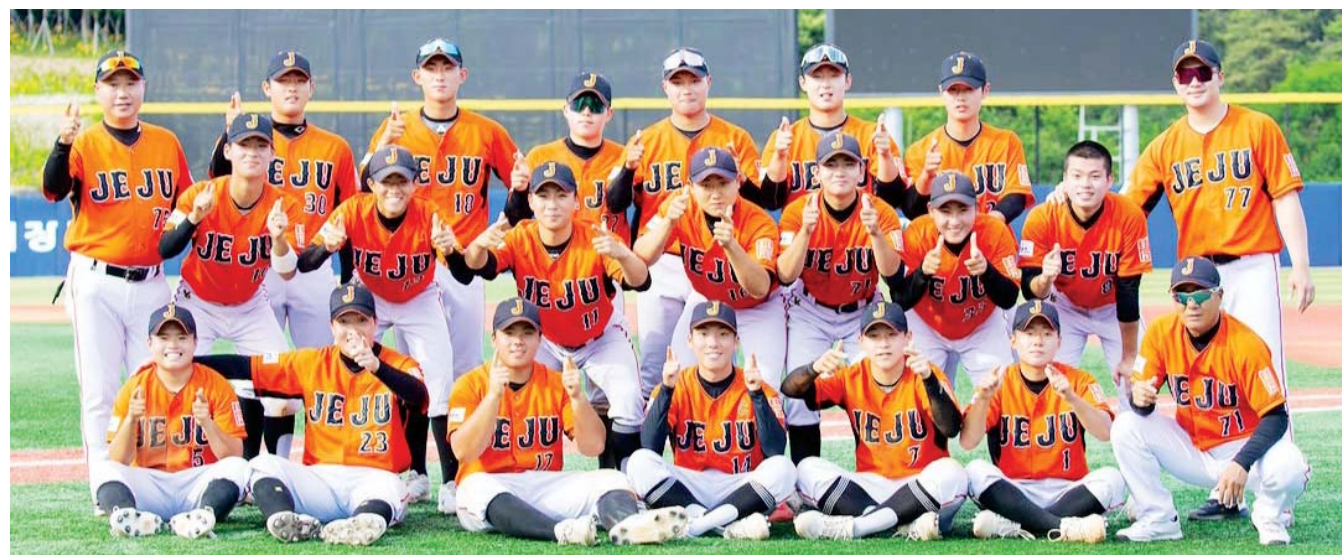
지난해 제주삼다수에 입단한 이지선은 평균대 3위와 개인종합 2위로 단체 종합우승에 기여했다.

이로써 제주삼다수 체조팀은 시즌 첫 국내 대회부터 단체전 정상에 등극하며 다가오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했다.

제주삼다수 정애리 감독은 “올해 첫 전국대회이다 보니 선수들이 긴장감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기 중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영석기자



제51회 전국기계체조대회에서 단체 종합우승한 제주삼다수 체조팀.



제주고 야구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제주고 제공

제주고 야구 전국체전 첫 메달 ‘부푼 꿈’ 하계 강화훈련·봉황대기 출격 등 담금질 한창

제주고 야구가 10월 제주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담금질이 한창이다. 특히 대회 11년 만의 홈경기인만큼 최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박재현 감독이 지휘하는 제주고는 올 시즌 탄탄한 전력을 바탕으로 주말리그는 물론 황금사자기 등 전국대회에서 선전을 펼쳤다. 마운드는 좌완 에이스 김대승을 필두로 사이드암 석지민, 우완 이지훈, 이적생 최혜성까지 선수층이 두텁다. 이에 따라 하계강화 훈련 기간 좀

더 세밀한 경기 운영과 제구력 향상에 힘 쏟고 있다. 조규제 투수코치는 “투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타격 쪽에서도 3학년들의 분전이 돋보인다. 신세계야마트배에서 홈런을 기록한 주홍찬, 김서현, 주말리그 개성고전에서 동점 3점 홈런을 기록한 윤열음이 주축이다. 경북고에서 전학 온 윤동근(2)도 빠르게 적응하며 화력의 세기를 더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담장을

넘길 수 있는 중장거리 타자이다.

수비에서는 도루 저지가 뛰어난 안방마님 신승윤과 유격수로 팀 수비를 조율하는 송민혁 등이 센터라인에 포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고는 올 시즌 결정적인 순간 대타, 대주자, 대수비 자원이 절대 부족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투수를 또한 고비를 번번이 넘지 못했다. 그래도 주말리그 전, 후반기 2승씩 거두고 제80회 황금사자기대회에서는 서울자랑차고를 5-3으로 격파하며 승리를 맛본 경험은 큰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고는 다음달 열리는 봉황대기에서 실전을 통해 작전 수행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월드컵 결과 죄송… 국회 청문회 출석”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어제 입장문 통해 밝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감독은 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며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홍 전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전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렇기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위닉스 얼음정수기 출시 이벤트

행사기간 —————
6/1(월) ~ 7/31(금)
480,000원 할인
* 5년약정 / 월34,900

출시 이벤트
약정6년 → **약정5년**
월임대료 42,900원
→ **34,900원**
(월 8,000원씩 할인)

렌탈등록비 ₩100,000원 면제

제주도 전지역 무료배송

제습기 보상판매

17L / 22L

DXAE120-NEK (12L)
360° 회전 휠
일일제습 12L
원통, 오피스텔, 작은방

₩299,000
₩**259,000**

DXSM170-IWK (17L)
360° 회전 휠
풍량개선 12.5%이상(120° 회전계)
원핸드 하트 버켓(한 손으로 탈착)
하트 손잡이

₩429,000
₩**359,000**

DXWE228-OYK (22L)
360° 회전 휠
UVC안심살균
정지 시 자동건조 기능
프리미엄 저소음 인버터
어플조작 # 집중건조기능 포함

₩489,000
₩**459,000**